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라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뜬눈생각체조	40 반려동물 극장 <단팥>(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유적트크스 가요 1번지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5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천기행(재)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추적 60분(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행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00 숲터(재) 05 명견만리 차이나 3.0(재)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절 먹고 잘 사는 법 식사 하셨어요?(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 4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타빙 매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100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 극장<단팥>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55 숲터	00 월화드라마 <블러드>	00 월화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생명최선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롬메이트
12 10 나는 물신이다(재) ①: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30 독립영화관 <우리별 일화와 열룩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다빈치 노트 ①:45 영상앨범 산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스페셜(재)

연예계에 부는 봄바람

■ 이민호·수지 커플

“우리도 연애해요”

만난지 한달 ... “아직은 조심스러워”



이민호·수지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23일 “이민호와 수지가 만난 지 1개월 정도 됐으며 현재 조심스럽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류스타 이민호(28)와 ‘국민 첫사랑’ 수지(21)가 커플이 됐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도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매체에서는 이민호와 수지가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를 보도했다.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을 통해 아시아를 주름잡는 한류스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수지는 그룹 미쓰에이 활동과 함께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국민 첫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

■ 류수영·박하선 커플

“우리 연인됐어요”

드라마서 첫 만남 ... 이후 연인으로 발전



류수영

류수영은 지난해 SBS TV ‘골없는 사랑’을 끝낸 후 최근 KBS 2TV ‘블러드’에 캐메오 출연했다.

박하선·류수영

배우 류수영(36)과 박하선(28)이 연인이 됐다. 류수영의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는 23일 “류수영과 박하선이 사귀는 지 5개월 됐다”고 밝혔다. 류수영과 박하선은 지난 2013년 MBC TV ‘투빅스’에서 약혼한 커플로 호흡을 맞추며 처음 만났다. 월엔터는 “류수영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친하게 지내다 얼마 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그러나 아직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하선은 지난해 SBS TV ‘유혹’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MBC TV ‘일밤 - 진짜사나이’에 잇달아 출연하기도 했다.

예능계 주말 안방극장 공략 성공할까

‘웃찾사’ 지난주 대비 시청률 4% 증가

지난 22일 안방극장에서 펼쳐진 일요일 밤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첫 대결은 예상대로 KBS 승리지만 SBS 또한 성과를 냈다.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0분부터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개콘)는 전국 12.7%, 수도권 12.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25분 먼저 시작한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사진) 시청률은 전국 5.9%, 수도권 6.1%로 집계됐다. ‘웃찾사’가 시간대를 옮기기 전인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개콘’은 1.2% 포인트 하락했지만 ‘웃찾사’는 1.2% 포인트 상승했다.



‘웃찾사’ 등 예능을 배치한 SBS는 편성 후 첫 주말에서 토일 양일 나란히 전주 대비 시청률이 4% 포인트 가량 뛰어올랐다. 부녀 예능인 ‘이빠를 부탁해’(6.9%)와 ‘웃찾사’(5.9%) 모두 지난 15일 종영한 SBS TV 주말극 ‘됐다 패밀리’ 시청률(2.3%)의 배를 넘겼다. ‘웃찾사’에 이어 방송되는 SBS 밤 10시대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도 22일 평소보다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한편, 비슷한 시간대 방영된 MBC TV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은 17%, KBS 1TV 대하사극 ‘징비록’은 10.3%의 시청률을 보였다.

EBS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40 최고의 요리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2:00 EBS 정오 뉴스
07:30 출동! 슈퍼맨(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08:00 땡땡땡 유치원	13:10 글로벌 가족 정착기
08:20 두다다콩(재)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08:35 WHO-위인극장	13:50 꼬마 철학자 유고
08:50 꿈디와 친구들	14:00 몬스터 수학나라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45 미연미로봇	19:30 EBS뉴스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극한직업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큐 오늘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인도양의 찬란한 빛 스리랑카>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부산교항구>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아파트 중독>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리얼극장 <1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45 꿈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하말리아에 대해>
17:00 WHO-위인극장(재)	24:05 지식채널e(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꼬마머신 타요	
18:00 생방송 퓌! 퓌! 보노하니	
19:00 지피터서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1-일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1-일짜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일짜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b>
01:40 <미적분II>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02:30 <수학I>	14:50 올림포스 <문학-일짜개념>
03:20 <수학II>	15:40 <미적분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I>	16:30 <수학I>
05:00 뉴탐스런 <물리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II>
06:00 <생명과학I>	18:10 뉴탐스런 <물리I>
06:40 <동아시아사>	19:20 <생명과학I>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a>
09:10 <심수석의 수학I>	21:50 <수학I>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수학I>	23:10 2016 수능 특강 <국어b>(재)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수학4-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수학5-1>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50 <수학6-1>
08:30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2
09:00 출가순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5⑥>
09:10 TV 중학 <국어1②>	18:40 <수학3(상)>
09:50 <수학1(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0:30 <역사2>	20:00 EBS 기획특강
11:10 <국어3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수학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2:30 실천 취업가이드	22:00 중학 학습비법 특강 <영어3>
13:10 중학 학습비법 특강 <수학1>	22:40 TV 중학 <국어5.6>
13:50 <수학2>	23:20 필독 <사회1>
14:30 <사회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15:20 만점왕 <수학3-1>	24:30 백점공략 <과학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음 2월 5일 己亥)

子	48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60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72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84년생 어릴적부터 집적으로 판단 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8, 29
丑	49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61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73년생 계획대로 추진한 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85년생 형세를 좌우할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83
寅	38년생 편이로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50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62년생 고상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74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86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 해야 성사 된다. 행운의 숫자 : 60, 39
卯	39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51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 63년생 확고부동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75년생 과신하지 않는다면 차질은 없다. 87년생 일사적인 현상이나 과녁치 말라. 행운의 숫자 : 67, 05
辰	40년생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52년생 변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64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76년생 주의한다면 외의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48
巳	41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에 작용한다. 53년생 지켜보고 있 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5년생 멀리서 훑어보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77년생 결과 속이 꽉 찬 상태이리라. 행운의 숫자 : 06, 13

午	42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무난함을 인식해야 하느니라. 66년생 뒤늦게 하점을 보게 되리라. 78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9, 91
未	43년생 취약점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리라. 55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었다. 67년생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대목이리라. 79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58
申	44년생 불변이 올 수 있으니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56년생 성공의 기쁨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68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80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59, 36
酉	45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57년생 길잡이 더 많이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69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81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37, 86
戌	46년생 항상 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58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70년생 인식했다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27
亥	47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59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다. 71년생 수심이 깊으면 더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83년생 기괴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28,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월 평균 15곡이 1위 음원차트 ‘일일천하’

신곡 발매 소식에 반짝 상승 음악 디지털화로 경쟁 치열



음원차트에서 1위곡이 빠르게 바뀌면서 순위차트에서 이를 이월 1위를 수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차트의 1위는 사실상 ‘일일천하’인 셈이다.

23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지니’를 운영하는 KT뮤직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지니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음원 수는 월 평균 17.5개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평균을 단순 계산하면 17일에 한번씩 1위곡이 바뀐다는 의미다.

일부 곡의 경우 하루도 1위 타이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녀시대 태연(사진)의 ‘사랑 그 한마디’, 스윗소로우의 ‘설레고 있죠’, 플라미 투 더 스카이의 ‘너를 너를 너를’ 등의 곡은 불과 1시간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다른 음원사이트의 1위곡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음악포털 빅스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위 달성 음원수(중복 제외)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4.1곡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서 순위 변동이 더욱 심해지며 지난 19일까지 1위에 오른 음원수가 12곡에 이른다.

이처럼 신곡이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가 곧 바로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연예기획사들이 내세우는 ‘음원차트 1위’ 홍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시로 1위가 바뀌고 있어 음원차트 1위라는 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가수 허각 측은 지난 17일 발표한 신곡 ‘사월의 눈’이 9개 음원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발매일 오후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아이돌그룹 레드벨벳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 및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했다.

또 하루 뒤인 19일에는 여성 듀오 다비치가 발표한 신곡 ‘두 사람’이 주요 사이트 1위를 차지했다고 소속사 CJ E&M이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특정 가수의 신곡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종류의 기사에는 ‘곧 바뀔 순위인데 의미없다’거나 ‘주간 차트라도 1위를 하고 얘기하라’는 댓글도 종종 눈에 띈다.

한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연예기획사의 강력한 마케팅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신곡 발매 소식을 듣고 음원을 찾아 들으면 순위가 반짝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 수십곡의 음원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CJ E&M 음악사업부 정수영 팀장은 “과거 음반에서 디지털 싱글로 음악 시장이 변화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면서 “하루 수십곡씩 출시되는 상황에서 그 경쟁을 제치고 차트 1위를 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